

피엔티 - 137400

Courtesy: 하나대투증권

Co. was founded in 2003 as a Roll to Roll equipment manufacturer for LCD films, and misc. related products. Domestic RTR equipment market is dominated by Japanese and German firms, comprising 70-80% of sales, but domestic firms are capturing market share recently. Total 2011 revenues recorded for domestic firms is roughly 200B KRW, with the firm carrying the largest market share for a domestic firm at 76B KRW in revenue. This implies the total RTR market in Korea is roughly \$1 BB. Smartphone related business is growing in line with the market, but LCD, PC and TV business is stagnating or declining. However, a large share of revenue is generated from smartphone related sales. Therefore, short term results may be shaky, but forecast steady growth in equipment demand for the long term. 2013 revenue 67B KRW, EBIT 9.6 B KRW anticipated. 2012 equipment demand subsided, but smartphone strength coupled with a recovering LCD market, should generate healthy demand.

롤투롤(Roll to Roll) 장비의 국내 1위 업체

동사는 2003년 설립된 롤투롤 장비 전문업체로 2차전지 소재와 LCD용 광학필름, FPCB 소재, MLCC 등 전자 부품 생산용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 롤투롤 장비 시장은 일본과 독일업체가 70~80%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이 점유율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롤투롤 장비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2,000억원 수준이고 동사는 국내 업체들 중 가장 많은 76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매출 비중은 2012년 3분기 누적 실적 기준으로 2차전지 사업부가 24.4%, 소재사업부가 72.2%, 반도체 사업부가 3.4% 차지하고 있다.

장비업체지만 전방산업이 나쁘지 않다

동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2차전지, FPCB 업체들의 전방산업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판매량 증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와 LCD 장비 업체들은 PC 및 TV 시장의 침체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향후 전망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2차전지 사업부와 소재 사업부의 전방산업이 성장 전망이 양호한 스마트기기 관련된 산업으로,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향후 동사의

장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실적 부진이 2013년 실적 호전으로 이어진다

2013년 매출액은 670억원(+48.9%), 영업이익 96억원(+60.4%)이 예상된다. 2012년은 전반적인 설비 투자 감소로 역성장을 하였지만 스마트 기기 시장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LCD 시장 또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동사의 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